



강진 김영일



고홍 한윤섭



곡성 김광희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여수 김석철

영광군수, e-모빌리티 산업

육성 위한 세일즈 외교 시동

인도 카르나타카 주정부 방문

영광군은 지난 13일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메카 인도 카르나타카주 Bengaluru(벵갈루루)에서 양 도시 간 e-모빌리티 산업에 대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영광군수는 카르나타카 주정부에 방문하여 직접 영광 e-모빌리티 산업을 소개하며 2019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초청과 더불어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우호 협력 관계를 제안했다.

카르나타카주 중소기업장관 켈라 칸드라 조셉 조지(K.J. George) 또한 영광 e-모빌리티 산업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며 인도 친환경 자동차 시

장규모와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이 산업을 함께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카르나타카주는 인구 6천 9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 마힌드라, 타타 등 자동차 및 IT 분야가 주력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30년부터 인도에서 전기차만 판매하는 친환경차 확대정책으로 관련 기업 유치와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공공 e-모빌리티 활성화 및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영광군 또한 명실상부 e-모빌리

티 중심도시로 2012년부터 총 2,052 억 규모의 e-모빌리티 클러스터 산업을 추진하고 있고 국내 유일 e-모빌리티연구센터, (사)한국스미트이 모빌리티협회, 규제자유특구 등 e-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양 도시 간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이번 9월 엑스포에 카르나타카 주정부 및 기업들을 초청하고 MOU를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상호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이번 방문은 영광군과 뱅갈루루가 함께 e-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서로 윈윈(win win)하는 사업으로 도약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국토교통 R&D

기술 설명회 개최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최근 광양항 월드타워센터에서 ‘찾아가는 국토교통 R&D 기술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이번 설명회는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 성과물에 대한 홍보 및 기술 소개, 현장 활용 가능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이에 공사 임직원 및 국토교통과학진흥원, (주)에코나리, (주)삼우기초기술 등 R&D 기술 보유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소개된 신기술은 (주)에코나라의 SandyByPassing 기술을 적용한 준설시스템, 해안 보전을 위한 철재형 이안제(Steel Type Breakwater) 기술 등 4가지다.

최상현 건설계획부장은 “여수·광양항 내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을 발굴하고 기술보유자와 공공기관이 교류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중소개발업체의 우수한 신기술이 널리 보급되고 시장 적용이 확대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고흥버스터미널 환경개선 협의 본격 시동

고흥군은 최근 군청 팔영산홀에서 고흥버스터미널 환경 개선을 위한 민간주도 협의회를 개최하고, 버스터미널 환경개선 논의를 본격화했다.

고흥버스터미널은 1980년대 건립된 건물로 시설이 낡고 협소하여 그동안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고흥군에서는 군민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5월에 군의원, 버스터미널사업자, 운송업체 대표, 교통전문가와 지역주민 등 19명으로 ‘고흥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민간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송귀근 군수는 “고흥버스터미널은 우리지역의 관문이자 우리군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장소로, 근본적

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혜와 전문지식을 모아주시기 바리며, 앞으로도 군의 현안사항에 대해 항상 군민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선출된 신용원 위원장은 “앞으로 협의회와 현장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 다양한 군민 의견수렴, 타당성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고흥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 협의회

와 현장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 다양한 군민 의견수렴, 타당성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고흥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 협의회

와 현장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군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 다양한 군민 의견수렴, 타당성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고흥버스터미널 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흥=한윤섭 기자

구례군, 콩 파종기 현장연시회 개최

콩, 틈새작목 적극 육성…밭작물 식량 자급률 기대



구례군은 14일 용방면 콩 작별반 포장에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 농가와 담당공무원 등 5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콩 파종기 현장연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현장연시회는 쌀 과잉문제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밭작물의 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김순호 구례군수의 연시회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용방 콩 작별반 고정주 반장의 콩 작목의 재배 도입 배경과 이후 농사 계획을 듣고, 콩 파종기업체의 기계 설명과 연시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현장연시회에서는 한 줄 재배, 두 줄 재배, 비닐 피복과 배토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계 등 세 가지 기종을 직접 살펴볼 수 있어 농작물 재배 지원사업 참여농가의 눈길을 끌었다.

농업기술센터 박노진 소장은 “기후 변화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 등 농가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연시회를 통해 현장 기술지원은 물론이고 콩을 새로운 틈새작목으로 육성해 농가의 경쟁력을 키워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광양시,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 지원 나서

광양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시설개선’과 ‘상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노후 정비 교체 등을 지원하며, 20개소를 선정해 단체별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상가 내 상인회가 구성된 단체이며, 전통시장 내 상인회와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

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되며, 참여 희망자는 오는 21일(금)까지 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오승택 지역경제팀장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사업이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시, 누구나 행복한 ‘포옹적 복지’ 추구

순천시는 아이 키우기 편하고 청년이 돌아오고, 어르신이 행복한 순천을 만들고 있다.

순천시는 무엇보다 아이 키우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아이 낳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

시는 어린이집 전면 무상 교육과 미취학 아동에 대한 육아 바우처 지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과 안전한 보육 환경을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등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 임신 출산 육아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임신부 태교 교실, 출산 준비 교실, 임산부·영유아 그림책 읽어주기, 신후 요가, 영유아 베이비 마사지, 영유아 요가교실을 운영중이다. 3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는 한방요법도 지

원하고 있다.

순천시는 ‘키우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맞벌이 가족 등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공동체나 아파트 지역주민이 주축이 되어 직접 아이를 돌보는 세대 어울림 보육스테이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중고교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0년에 고등 학생 신입생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고 순천에서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은퇴전후의 장년세대가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장년층 인생 2모작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군 회천면·득량면

‘웰빙 햇감자’ 수확 한창

보성군 회천면과 득량면 들녘에서는 햇감자 수확이 한창이다. 5월 말 수확을 시작한 보성감자는 6월 초순부터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 현재 90% 정도 출하가 완료된 상태다.

특히, 득량면 청정지역에서 재배되는 보성감자는 토질이 우수한 홀토에서 자라 품질이 우수하며, 일조량이 풍부한 득량면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맛과 영양이 최고다.

또한, 청봉, 칼륨, 마그네슘 등 무기질이 풍부해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햇팅 기호식품으로 인기가 좋다. 현재 수확중인 ‘수미’ 품종은 전, 반찬 등에 두루 쓰이며, 찌서 먹으면 맛이 좋아 간식용으로도 인기가 좋다.

보성군은 이번에 2만2천여 톤의 수확량과 총 165억 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넓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동3길 2(전남도청 옆)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취약근로자 권리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경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법 안내